운명설계소

홍길동님 · 성춘향님

두 사람 관계 분석 리포트 — 연인·부부

이름	홍길동
생년월일	1977년 7월 7일 진시 (07:30~09:29)
성별	남성
일간	을(작은 나무)

이름	성춘향
생년월일	1980년 11월 23일 14시 30분 (미시 13:30~15:29)
성별	여성
일간	경(원석/큰 칼)

관계 지표 (계산값 · 연인·부부 기준)

항목	가감
일간 천간합	+15
일지 육합	+15
띠 합	+5
성춘향님이 홍길동님의 빈 기운(물)을 채움	+8
합계 (기준 50점)	**93점**

이 점수는 합·충·오행 보완처럼 계산으로 나오는 관계 요소에 연인·부부 기준의 가중치를 적용한 지표입니다. 같은 두 분이라도 어떤 사이로 보느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 매일 붙어 지내는 사이에서는 일지(태어난 날의 아래 글자)를 무겁게, 일로 만나는 사이에서는 일간(태어난 날의 윗 글자)을 무겁게 봅니다. 근거를 전부 위 표에 공개하며, 검증된 사실이 아니라 참고값입니다.

홍길동님의 사주팔자

년주	월주	일주	시주
정(촛불/달빛)	병(태양/큰 불)	을(작은 나무)	경(원석/큰 칼)
사(뱀)	오(말)	축(소)	진(용)

오행: 나무 1 · 불 4 · 흙 2 · 쇠 1 · 물 0

성춘향님의 사주팔자

년주	월주	일주	시주
경(원석/큰 칼)	정(촛불/달빛)	경(원석/큰 칼)	계(빗물/시냇물)
신(원숭이)	해(돼지)	자(쥐)	미(양)

오행: 나무 0 · 불 1 · 흙 1 · 쇠 3 · 물 3

계산 — 여덟 글자와 합·충·오행은 절기 기준 계산값입니다. 서머타임(1948~1988), 한국 표준시 30분 보정, 야자시를 반영하고 20개 검증 케이스로 매번 자동 확인합니다.
해석 — 그 글자로 두 사람의 관계를 읽는 부분은 명리학의 전통적 관점이며 검증된 사실이 아닙니다. 참고로 보시고, 관계의 결정은 두 분이 하십시오.

이 리포트에 담긴 것

번호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01 홍길동은 어떤 사람인가

02 홍길동이 사랑할 때

03 성춘향은 어떤 사람인가

04 성춘향이 사랑할 때

05 서로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06 맞물리는 자리

07 부딪히는 자리

08 서로 채워 주는 것

09 마음이 오가는 방식

10 오래 가려면

11 지금 먼저 손볼 자리

12 앞으로의 시기

13 종합 정리

1. 홍길동은 어떤 사람인가

여덟 글자

정사 병오 을축 경진. 을목 일간입니다. 을목은 큰 나무가 아니라 덩굴이나 화초에 비유하는 나무예요. 부드럽고 잘 휘지만 쉽게 꺾이지도 않습니다.

태어난 달이 한여름 정오이고, 여덟 글자 중 넷이 불입니다. 나무 하나, 불 넷, 흙 둘, 쇠 하나, 물 영. 물이 겉으로 한 글자도 없습니다.

이 판이 만드는 성격

불은 을목이 밖으로 내보내는 기운입니다. 말, 아이디어, 만들어내는 것이 전부 여기 들어갑니다. 그게 넷이니 내보내는 힘이 대단히 큽니다. 먼저 말을 꺼내고, 먼저 계획을 세우고, 먼저 움직이는 쪽일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받는 쪽입니다. 물은 을목을 살리는 기운인데, 그게 없습니다. 쉬는 것, 배우는 것, 기대는 것이 전부 물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판은 주기는 잘하는데 받는 게 서툽니다. 힘들다는 말을 잘 안 하고, 도움을 청하는 문장이 잘 안 나옵니다.

고전 기준으로 극신약에 해당합니다. 혼자 다 짊어지는 방식보다 나눠 지는 방식이 훨씬 잘 맞는 판이라는 뜻입니다.

관계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

챙기는 쪽에 섭니다. 상대가 필요한 것을 빨리 알아채고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필요한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혼자 지쳐버리는 흐름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이걸 성격 탓으로 읽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받는 통로가 원래 좁게 태어난 배치라, 받는 연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발밑에 무엇이 있는가

글자를 위아래로 나눠 보면 더 정확해집니다. 위에 뜬 네 글자는 남에게 보이는 쪽이고, 발밑의 네 글자는 실제로 사는 자리입니다.

홍길동 님 발밑은 사화, 오화, 축토, 진토입니다. 앞의 둘이 불이고 뒤의 둘이 흙이에요. 젊은 자리는 뜨겁고 나중 자리는 무겁습니다.

특히 일지의 축토가 중요합니다. 일지는 배우자 자리로 보는데, 축토는 한겨울의 젖은 흙입니다. 불 넷 한가운데 이 축토가 하나 앉아 있다는 게 이 사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에요.

뜨거운 판에서 유일하게 식어 있는 자리가 배우자 자리라는 뜻입니다. 관계에서 안정을 얻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뒤집으면 그 자리가 흔들리면 판 전체가 흔들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주는 힘이 크고 받는 통로가 좁은 사람입니다. 밝고 먼저 움직이는데 정작 자기가 힘든 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잡아주는 자리가 옆 사람 자리입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판이고, 옆에 누가 있느냐로 크게 달라지는 판입니다. 이건 약점이 아니라 이 사주가 원래 그렇게 생긴 겁니다.

2. 홍길동이 사랑할 때

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불이 넷인 사람은 애정도 내보내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말로 표현하고, 챙기고, 계획을 세우고, 먼저 연락합니다. 무심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일은

거의 없는 배치예요.

다만 표현의 양이 곧 마음의 양은 아닙니다. 이 판은 마음이 크지 않아도 표현이 나옵니다. 내보내는 게 기본값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표현만 보고 마음의 크기를 재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남자 사주에서 흙 자리

을목에게 흙은 재물이면서 배우자를 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축토와 진토, 둘 다 발밑에 있습니다. 뜬 자리가 아니라 밑에 깔려 있다는 건 관계가 화려한 쪽보다 생활 쪽에 뿌리내린다는 뜻으로 봅니다.

연애 초기의 설렘보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는 시간에서 안정감을 얻는 쪽입니다. 오래 만나야 진가가 나오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랑할 때의 약한 곳

힘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배려라고 여기지만 옆에서는 안 알려준다고 느끼기 쉬운 지점이에요. 이 판이 관계에서 만드는 오해는 거의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지치면 조용해집니다. 화를 내거나 따지는 대신 말수가 줄어드는 쪽이에요. 상대가 그 신호를 못 읽으면 갑자기 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상대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쏟아내는 말과 계획을 판단하지 않고 일단 들어주는 쪽이요. 그리고 힘든 걸 먼저 물어봐주는 사람입니다. 이 판은 물어보지 않으면 끝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오래 못 견디는 것

이 판이 관계에서 가장 버티기 힘들어하는 건 다툼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불이 넷인 사람은 반응으로 삽니다. 말을 하면 답이 와야 하고, 뭘 하면 알아봐 줘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화를 내는 것보다 아무 말 없는 쪽이 훨씬 아픕니다.

싸울 때 상대가 입을 닫으면 이 판은 그걸 끝났다는 신호로 읽습니다. 상대는 그저 생각 중이었을 뿐인데도요.

반대로 이 사람이 잘하는 것

분위기를 되돌리는 힘이 좋습니다. 어색해진 자리에서 먼저 말을 꺼내는 쪽이고, 사과도 빠릅니다. 자존심 때문에 관계를 망치는 유형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을 잘 만듭니다. 기념일을 챙기고, 같이 갈 곳을 찾아보고, 사진을 남기는 쪽이에요. 시간이 지나 관계를 지탱하는 게 이런 것들이라는 걸 생각하면 작지 않은 재능입니다.

이 사람이 관계에서 착각하기 쉬운 것

주는 것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준 만큼 받고 있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주는 방식이 다르면 그게 안 보입니다.

홍길동 님은 받는 통로가 좁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조용히 챙겨준 것들을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만 주고 있다는 서운함이 이 자리에서 생깁니다.

실제로는 받고 있었는데 받는 형태를 몰라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홍길동 님이 무심해서가 아니라 표현이 큰 사람이 표현이 작은 것을 잘 못 읽어서입니다.

한 번씩 세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가 나를 위해 한 것 중에 말이 없었던 것이 무엇인지요. 이 판은 그걸 세어보면 대부분 놀랍니다.

3. 성춘향은 어떤 사람인가

여덟 글자

경신 정해 경자 계미. 경금 일간입니다. 경금은 아직 다듬지 않은 쇠, 도끼나 바위에 비유합니다. 을목이 부드러운 쪽이라면 경금은 단단한 쪽이에요.

태어난 달이 초겨울이고, 물이 셋에 쇠가 셋입니다. 나무 영, 불 하나, 흙 하나, 쇠 셋, 물 셋. 겨울의 차가운 쇠가 맑은 물 속에 있는 모양입니다.

이 판이 만드는 성격

쇠가 셋이라는 건 자기 힘이 세다는 뜻입니다. 고전 기준으로 신강에 해당해요.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기준이 분명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굽히지 않는 편입니다.

물이 셋인 것도 중요합니다. 경금에게 물은 밖으로 내보내는 기운인데, 이 조합을 고전에서는 맑은 물에 씻긴 쇠로 봅니다. 머리가 빨리 돌고 판단이 정확한 쪽으로 읽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핵심을 짚습니다.

강점과 그늘이 같은 자리

자기 기준이 분명하다는 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잘 안 바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번 아니라고 판단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이 셋이라 속으로 생각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여러 번 계산이 끝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표현이 적은 것이 마음이 없는 것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비어 있는 자리

나무가 한 글자도 없습니다. 여자 사주에서 나무는 경금에게 재물 자리인데, 재물을 못 번다는 뜻이 아니라 쥐고 관리하는 감각보다 벌고 흘려보내는 쪽에 가깝다는 뜻으로 봅니다.

그리고 불이 하나뿐입니다. 정화 하나예요. 겨울 쇠에게 불은 온기이자 자기를 다듬어주는 자리인데, 그게 귀하다는 건 따뜻함을 주는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발밑에 무엇이 있는가

성춘향 님 발밑은 신금, 해수, 자수, 미토입니다. 쇠 하나에 물 둘, 그리고 흙 하나예요.

일지가 자수입니다. 배우자 자리에 물이 앉아 있다는 건 관계에서도 생각이 먼저 도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감정보다 판단이 앞서고, 상대를 볼 때도 관찰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시지의 미토가 유일한 흙입니다. 미토는 한여름의 마른 흙이라, 겨울 물 사이에서 온기를 지닌 자리예요. 이 판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여기입니다.

정리하면

자기 힘이 세고, 머리가 빠르고, 기준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담담한데 안에서는 이미 계산이 끝나 있습니다.

따뜻함이 없는 게 아니라 아껴 쓰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마음을 받는다는 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판이 필요로 하는 건 자기를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풀어주는 사람입니다.

4. 성춘향이 사랑할 때

쉽게 열지 않습니다

쇠가 셋인 판은 관계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좋아한다고 해서 자기를 다 내주는 쪽이 아니에요. 상대를 오래 보고 판단한 다음에 문을 엽니다.

그래서 초반에 미지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인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판은 확인이 끝나면 그때부터 아주 깊어집니다.

불 하나가 하는 일

여자 사주에서 불은 경금에게 관성이고, 배우자와 인연을 보는 자리로 읽습니다. 정화 하나가 태어난 달 위에 떠 있어요.

하나뿐이라는 건 대상이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나눠지는 마음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몰리는 마음이에요. 대신 그 하나가 흔들리면 판 전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화는 촛불 같은 불입니다. 확 타오르는 병화와 달리 오래 조용히 타는 쪽이에요. 이 판이 원하는 애정도 그런 모양에 가깝습니다. 뜨거운 고백보다 오래 곁에 있는 쪽입니다.

표현하는 방식

물이 셋이라 마음이 말보다 행동으로 나갑니다. 좋아한다는 말은 잘 안 하는데 챙기는 방식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상대가 뭘 불편해하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쪽이에요.

문제는 상대가 그걸 못 읽을 때입니다. 이 판은 못 읽었다고 다시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상대

표현을 대신 해주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못 하는 말을 상대가 먼저 꺼내주면 이 판은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판단을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설득하려 들거나 바꾸려 하면 문이 닫힙니다. 반대로 판단을 인정해주면 스스로 물러설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오래 못 견디는 것

이 판이 가장 못 견디는 건 말이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쇠가 셋인 사람은 기준으로 삽니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르면 그때부터 상대를 믿는 계산이 다시 시작돼요. 한 번은 넘어가지만 반복되면 안에서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게 겉으로 잘 안 보입니다. 여전히 대화하고 여전히 챙기는데 이미 마음의 결론이 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에서 가장 조심할 자리입니다.

반대로 이 사람이 잘하는 것

한 번 정한 사람에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좋은 조건이 와도 자기가 정한 자리를 지키는 쪽이에요.

그리고 위기에 강합니다. 일이 터졌을 때 감정보다 처리가 먼저 나옵니다. 옆 사람이 무너져 있을 때 대신 정리해주는 사람이 이 판입니다. 평소에는 차가워 보여도 급할 때 진가가 나옵니다.

5. 서로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시선의 높이가 다릅니다

두 분 관계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서로를 보는 자리가 다릅니다.

홍길동 님에게 성춘향 님은 관성 자리입니다. 관성은 나를 다루는 기운이고, 기준이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홍길동 님 쪽에서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잘 보이고 싶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앞에서 조금 긴장하는 쪽입니다.

성춘향 님에게 홍길동 님은 재성 자리입니다. 재성은 내가 다루고 아끼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성춘향 님 쪽에서는 챙겨주고 싶은 사람, 내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만드는 장면

잘 맞을 때는 아주 편안한 조합입니다. 한쪽은 존중하고 한쪽은 챙기니 역할이 겹치지 않아요. 다투는 방식도 서로 다릅니다. 홍길동 님은 물러서고 성춘향 님은 정리합니다.

어긋날 때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홍길동 님은 눈치를 보고, 성춘향 님은 그걸 답답해합니다. 성춘향 님 입장에서는 왜 할 말을 안 하느냐가 되고, 홍길동 님 입장에서는 말했다가 실망시킬까 봐가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이건 누가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는 자리가 원래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춘향 님이 조금만 낮춰서 물어봐 주시면 홍길동 님은 훨씬 쉽게 말합니다. 반대로 홍길동 님이 긴장을 조금 풀면 성춘향 님은 답답함이 줄어듭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땠는가

이 배치는 첫인상이 서로 다르게 남습니다.

홍길동 님 쪽에서는 성춘향 님이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매력적인데 벽이 있고, 잘 보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는 쪽이요.

성춘향 님 쪽에서는 홍길동 님이 편한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경계할 필요가 없고, 옆에 있으면 분위기가 가벼워지는 쪽이요. 성춘향 님처럼 사람을 재고 만나는 판에서 이건 드문 반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변화

관계가 익으면 이 자리는 조금씩 이동합니다.

홍길동 님의 긴장이 풀리면서 하고 싶은 말이 늘어나고, 성춘향 님은 챙기던 자리에서 요구하는 자리로 조금 옮겨갑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이 이동이 서로 다른 속도로 일어나면 어긋납니다.

그래서 두 분은 관계 초반보다 중반에 다툼이 많아지는 편입니다. 이건 나빠진 게 아니라 자리가 옮겨가는 중이라는 신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 구조가 좋은 이유

서로를 보는 자리가 다르다는 게 나쁘게 들릴 수 있는데 실은 그 반대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서로를 보면 부딪힙니다. 둘 다 챙기려 들면 간섭이 되고, 둘 다 존중하려 들면 아무도 결정을 못 합니다.

두 분은 자리가 나뉘어 있어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한쪽이 세우고 한쪽이 기대는 모양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관계가 편하다고 느끼셨다면 이 구조 덕입니다.

다만 이게 굳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늘 성춘향 님만 결정하고 늘 홍길동 님만 따르면 나중에 두 분 다 지칩니다. 결정의 자리를 가끔 바꿔보시는 게 좋습니다.

6. 맞물리는 자리

일간끼리 직접 붙습니다

홍길동 님은 을목이고 성춘향 님은 경금입니다. 을과 경은 만나면 서로 붙는 관계로 보고, 이걸 을경합이라 합니다.

두 사람의 사주에서 일간은 본인 자신입니다. 그 두 글자가 직접 붙는다는 건 관계론에서 가장 강한 끌림으로 봅니다.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당겨지는 자리예요.

처음 만났을 때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끌림이 있었다면 이 자리로 봅니다.

발밑에서도 한 겹 더 붙습니다

천간만이 아닙니다. 두 분은 일지끼리도 붙습니다.

홍길동 님의 일지는 축토이고 성춘향 님의 일지는 자수인데, 자와 축은 서로 붙는 짝입니다. 이걸 육합이라 합니다.

일지는 배우자 자리입니다. 두 사람의 배우자 자리가 직접 붙는다는 건 관계론에서 가장 좋게 보는 배치예요. 일간이 마음이 당기는 자리라면 일지는 같이 사는 자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두 분은 좋아하는 것과 같이 지내는 것이 둘 다 맞는 조합입니다. 마음은 당기는데 살아보니 안 맞는 경우가 흔한데, 두 분은 그 반대예요.

그리고 축토는 홍길동 님 사주에서 불 넷 사이에 유일하게 식어 있는 자리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성춘향 님의 물이 와서 붙습니다. 우연이라기에는 정확한 배치입니다.

지지에서도 한 번 얽힙니다

홍길동 님의 사화와 성춘향 님의 신금은 서로 얽히는 관계입니다. 고전에서는 이 조합을 붙기도 하고 부딪기도 하는 자리로 봅니다.

그래서 두 분 사이는 밋밋한 적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좋을 때는 아주 잘 맞고, 어긋날 때는 확실히 어긋나는 쪽이에요. 미지근하게 지나가는 관계가 아닙니다.

성질이 반대라서 맞물립니다

홍길동 님은 부드럽고 잘 휘는 나무, 성춘향 님은 단단하고 잘 안 휘는 쇠입니다. 반대인데 그래서 물립니다.

역할로 보면 이렇습니다. 홍길동 님이 벌이고 성춘향 님이 정리합니다. 홍길동 님이 사람을 모으고 성춘향 님이 걸러냅니다. 홍길동 님이 분위기를 만들고 성춘향 님이 판단을 내립니다.

같이 일을 해도 잘 맞는 조합이고, 실제로 두 분이 뭔가를 같이 벌인 적이 있다면 결과가 나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합이 갖는 성질

을경합은 관계론에서 유정한 합으로 봅니다. 이해타산으로 붙는 합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는 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분 사이는 조건이 나빠져도 잘 안 끊어지는 편입니다. 상황 때문에 멀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흐름이 있고, 오래 안 보다가 만나도 어색함이 적습니다.

합에도 그늘이 있습니다

붙는 힘이 강하다는 건 떨어지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미 아닌 걸 알면서도 정리가 안 되는 관계가 이런 배치에서 나옵니다. 헤어져야 할 이유가 분명한데도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두 분이 만약 어긋나 있는 상태라면 이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못 놓는 게 미련이 많아서가 아니라 원래 붙는 배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 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하셔야 합니다.

같이 뭘 할 때

이 조합은 연애만이 아니라 일에서도 잘 맞습니다. 관계론에서 합은 애정만 뜻하는 게 아니라 결합이 잘 되는 자리를 뜻합니다.

홍길동 님은 시작이 빠르고 사람을 모읍니다. 성춘향 님은 판단이 정확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서로 겹치지 않으니 역할 다툼이 안 생깁니다.

같이 뭔가를 계획하실 일이 있다면 이 순서를 지키시면 됩니다. 벌이는 단계에서는 성춘향 님이 브레이크를 늦게 걸고, 정하는 단계에서는 홍길동 님이 손을 떼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 최악입니다. 시작부터 성춘향 님이 따지면 홍길동 님은 아무것도 못 꺼내고, 마무리를 홍길동 님이 쥐면 일이 안 닫힙니다.

7. 부딪히는 자리

발밑에서 두 번 부딪힙니다

천간에서 붙는 것과 달리 지지에서는 충돌이 둘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홍길동 님의 오화와 성춘향 님의 자수입니다. 자오충이라 부르는데, 열두 지지 중에서 가장 정면으로 맞서는 조합으로 봅니다.

둘째는 홍길동 님의 축토와 성춘향 님의 미토입니다. 축미충입니다.

어디가 부딪히는가

자리가 중요합니다. 오화는 홍길동 님 사주에서 가장 힘이 센 자리이고, 자수는 성춘향 님의 배우자 자리입니다. 그리고 축토는 홍길동 님의 배우자 자리이고, 미토는 성춘향 님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걸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의 배우자 자리끼리는 앞에서 본 대로 붙습니다. 축토와 자수는 육합이에요.

부딪히는 건 각자의 배우자 자리와 상대의 다른 자리입니다. 성춘향 님의 자수는 홍길동 님의 축토와는 붙고 오화와는 부딪힙니다. 같은 글자가 한쪽으로는 붙고 다른 쪽으로는 밀치는 겁니다.

이게 두 분 관계의 정확한 모양입니다. 중심은 붙어 있고 주변에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크게 흔들려도 잘 안 끊어지고, 안 끊어지니까 같은 자리에서 계속 흔들립니다.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오충은 온도 차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갑습니다. 홍길동 님이 달아올라 말할 때 성춘향 님은 식은 채로 듣습니다. 홍길동 님 입장에서는 왜 반응이 없느냐가 되고, 성춘향 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흥분하느냐가 됩니다.

축미충은 생활의 기준 차이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돈 쓰는 방식, 집안일 나누는 방식, 가족을 대하는 방식처럼 매일 반복되는 자리에서 어긋납니다. 큰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 계속 걸리는 쪽이에요.

그래서 헤어지는가

그건 아닙니다. 충이 있는 관계가 오래 못 간다면 세상 부부의 절반이 못 갔을 겁니다.

충은 끊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어디서 부딪힐지 모르면 부딪힐 때마다 상대가 문제로 보이고, 알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 리포트에서 가장 값이 큰 부분이 여기입니다.

언제 크게 나타나는가

충은 늘 같은 크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조용할 때는 거의 안 느껴지다가 어떤 조건에서 커집니다.

두 분의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에서 커집니다. 첫째는 둘 중 하나가 지쳐 있을 때입니다. 여유가 없으면 원래 넘어가던 것이 안 넘어갑니다.

둘째는 생활 조건이 바뀔 때입니다. 이사, 이직, 아이, 가족 문제처럼 판이 흔들리는 일이 생기면 축미충 쪽이 먼저 반응합니다.

셋째는 한쪽이 참기 시작할 때입니다. 참는 건 부딪힘을 없애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것이라, 나중에 몰아서 터집니다. 두 분 조합에서는 이게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충이 오히려 좋은 자리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충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충은 흔들어서 움직이게 만드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두 분처럼 한쪽은 지치도록 주고 한쪽은 담아두는 조합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냥 굳어버립니다.

부딪힌다는 건 아직 서로에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위험한 건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 다툴 것도 없어진 관계입니다.

8. 서로 채워 주는 것

없는 것을 상대가 갖고 있습니다

두 분의 오행을 나란히 놓으면 이 관계의 가장 큰 강점이 보입니다.

홍길동 님은 불이 넷인데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춘향 님은 물이 셋이고 쇠가 셋입니다. 홍길동 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인데, 그 물을 성춘향 님이 넉넉히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춘향 님은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는 성춘향 님에게 재성 자리이자 숨통이 되는 기운인데, 홍길동 님이 바로 나무입니다.

없는 것을 서로가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관계론에서 가장 좋게 보는 배치 중 하나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춘향 님이 홍길동 님에게 주는 것은 식히는 힘입니다. 홍길동 님은 혼자 두면 달아올라 태워버리는 쪽인데, 옆에서 한 박자 늦춰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소진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홍길동 님이 성춘향 님에게 주는 것은 무르게 하는 힘입니다. 성춘향 님은 혼자 두면 자기를 너무 딱딱하게 세우는 쪽인데, 옆에서 웃겨주고 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긴장이 내려갑니다.

놓치기 쉬운 것

이런 배치의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채워주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고마운 줄 모르게 됩니다.

홍길동 님은 성춘향 님의 차분함을 나중에는 무심함으로 읽기 쉽고, 성춘향 님은 홍길동 님의 활기를 나중에는 산만함으로 읽기 쉽습니다. 처음에 좋아했던 그 성질이 그대로 불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상대가 변한 게 아니라 익숙해진 겁니다. 처음에 무엇 때문에 좋았는지 한 번씩 떠올려 보시는 게 이 관계에서는 특히 값이 큽니다.

이 배치를 살리는 법

서로 채워주는 배치는 가만히 둬도 어느 정도 작동합니다. 다만 조금만 신경 쓰면 훨씬 커집니다.

핵심은 상대가 채워주는 자리를 대신하려 들지 않는 겁니다.

홍길동 님이 스스로 차분해지려고 애쓰는 것보다 성춘향 님에게 물어보는 쪽이 훨씬 빠릅니다. 성춘향 님이 스스로 밝아지려 애쓰는 것보다 홍길동 님을 옆에 두는 쪽이 빠릅니다.

혼자 다 되려고 하면 둘 다 지칩니다. 못 하는 걸 상대에게 맡기는 게 이 배치에서는 미덕입니다.

특히 홍길동 님께

받는 통로가 좁은 판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의 가장 큰 이득을 홍길동 님이 못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성춘향 님이 물을 셋 갖고 있어도 홍길동 님이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것, 도와달라고 하는 것, 그냥 들어달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홍길동 님이 이 관계에서 실제로 얻어야 할 것입니다.

9. 마음이 오가는 방식

표현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두 분이 다투는 이유 대부분은 내용이 아니라 표현 방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홍길동 님은 불이 넷입니다. 불은 밖으로 나가는 기운이라 마음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좋으면 좋다고 하고 서운하면 그때 말합니다. 담아두지 못하는 쪽이에요.

성춘향 님은 물이 셋이고 쇠가 셋입니다. 물은 안으로 도는 기운이고 쇠는 걸러내는 기운입니다. 마음이 생겨도 바로 안 나옵니다. 정리해서 필요한 만큼만 내보냅니다.

그래서 생기는 장면

홍길동 님이 감정을 쏟아낼 때 성춘향 님은 그걸 다 받아 정리하려 합니다. 그런데 홍길동 님은 정리를 원한 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조언이 돌아오면 서운합니다.

반대로 성춘향 님이 말을 아낄 때 홍길동 님은 그걸 거리로 읽습니다. 성춘향 님은 아직 정리가 안 끝나서 말을 안 한 것뿐인데, 홍길동 님은 마음이 식었다고 받습니다.

두 분 사이의 오해는 거의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속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각자 하나씩

홍길동 님께는 이걸 권합니다. 말을 꺼낼 때 결론부터 말고 지금 마음부터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서운하다는 한마디를 먼저 놓으면 성춘향 님이 조언 대신 그 마음부터 받습니다.

성춘향 님께는 이걸 권합니다. 정리가 안 끝났으면 끝났다고 말하지 말고 아직 정리 중이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침묵과 정리 중은 홍길동 님에게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싸움이 커지는 순서

두 분의 다툼은 거의 같은 순서로 커집니다. 알아두시면 중간에 끊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홍길동 님이 감정이 섞인 채로 말을 꺼냅니다. 성춘향 님은 그 말에서 사실만 뽑아 대답합니다. 홍길동 님은 마음을 못 받았다고 느껴 말이 세집니다.

여기서 성춘향 님이 입을 닫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이 상태로는 대화가 안 된다고 판단해서입니다. 그런데 홍길동 님에게 그 침묵은 가장 아픈 신호예요.

그래서 홍길동 님이 더 몰아붙이고, 성춘향 님은 더 닫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원래 무슨 이야기였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끊을 수 있는가

가장 쉬운 자리는 세 번째입니다. 성춘향 님이 입을 닫기 직전이요.

이때 닫는 대신 지금은 말고 이따 이야기하자는 한 줄만 나와도 흐름이 끊깁니다. 성춘향 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고, 홍길동 님에게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침묵과 이따 이야기하자는 같은 행동인데 홍길동 님이 받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한 줄이 두 분 사이에서 가장 값싼 해결책입니다.

10. 오래 가려면

이 관계가 깨지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두 분처럼 천간에서 붙고 지지에서 부딪히는 조합은 헤어지더라도 이유가 늘 같습니다.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계속 부딪혀 지쳐서입니다.

그래서 오래 가는 방법도 단순합니다. 부딪히는 자리를 미리 정해두면 됩니다.

온도 차를 규칙으로 바꾸기

자오충은 온도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길동 님이 뜨거울 때 성춘향 님이 차갑습니다.

이건 성격을 고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신 규칙을 하나 두면 크게 줄어듭니다. 홍길동 님이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꺼낸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지 않기로 정하는 겁니다.

말은 그때 해도 됩니다. 결정만 다음 날로 미루는 거예요. 홍길동 님은 말할 자리를 얻고 성춘향 님은 판단할 시간을 얻습니다.

생활 기준을 문서로 바꾸기

축미충은 매일 반복되는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돈, 집안일, 양가 문제 같은 것들이요.

이런 건 그때그때 말로 정하면 매번 다시 부딪힙니다. 두 분은 한 번 정해서 적어두는 쪽이 훨씬 잘 맞습니다. 성춘향 님은 원래 기준을 세우는 데 능하고 홍길동 님은 정해진 게 있으면 잘 따르는 쪽이에요.

역할을 바꾸지 않기

이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건 서로의 자리를 바꾸려 드는 겁니다.

홍길동 님을 정리하게 만들고 성춘향 님을 활기차게 만들려 하면 둘 다 못 합니다. 잘하는 쪽이 그 자리를 맡는 게 이 조합에서는 훨씬 낫습니다. 벌이는 건 홍길동 님, 마무리는 성춘향 님입니다.

각자의 숨구멍을 인정하기

마지막 하나입니다. 두 분은 지치는 방식이 다릅니다.

홍길동 님은 사람을 만나면 풀립니다. 불이 넷인 판은 밖에서 기운을 얻는 쪽이에요. 힘들다고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더 가라앉습니다.

성춘향 님은 혼자 있으면 풀립니다. 물이 셋인 판은 안에서 정리해야 회복이 되는 쪽이에요. 힘들 때 사람을 만나면 더 지칩니다.

이게 서로 이해가 안 되면 사이가 상합니다. 홍길동 님은 왜 같이 안 나가느냐가 되고, 성춘향 님은 왜 혼자 있게 두지 않느냐가 됩니다.

각자 회복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만 인정해도 이 다툼은 사라집니다. 같이 있는 시간만큼 따로 있는 시간을 인정해주는 것이 두 분에게는 애정 표현입니다.

정리하면

이 관계에서 오래 가는 방법은 서로를 바꾸는 게 아니라 부딪히는 자리에 규칙을 두는 겁니다.

감정이 올라온 자리에서는 결론을 내지 않는다. 생활 기준은 한 번 정해서 적어둔다. 회복하는 방식이 다른 걸 인정한다.

세 줄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두 분은 충분히 오래 갑니다.

11. 지금 먼저 손볼 자리

하나만 고른다면 이겁니다

할 게 많으면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두 분 사주에서 지금 당장 가장 값이 큰 것 하나만 고르겠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왜 이것부터인가

앞에서 본 두 개의 충 모두 결국 대화 자리에서 터집니다. 온도 차도 기준 차이도 말로 나오기 전까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분은 말하는 순서가 서로 반대입니다. 홍길동 님은 감정을 먼저 내놓고 나중에 정리하고, 성춘향 님은 정리를 먼저 하고 필요한 만큼만 내놓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순서가 어긋나서 서로 딴 얘기를 듣습니다. 순서 하나만 맞춰도 다툼의 상당 부분이 줄어듭니다.

이걸 바꾸면 나머지도 따라옵니다

말 순서가 맞기 시작하면 앞에서 본 다른 문제들도 같이 줄어듭니다.

온도 차는 감정을 먼저 꺼내면 절반이 사라집니다. 홍길동 님이 서운하다고 먼저 말하면 성춘향 님은 그 감정에 답하지, 사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생활 기준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딪히는 진짜 이유는 기준이 달라서가 아니라 기준 이야기를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꺼내서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같은 이야기를 훨씬 조용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고치려 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만 두어 달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1) 홍길동 님은 이야기를 꺼낼 때 첫 문장을 감정으로 시작하세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가 아니라, 지금 좀 서운하다 또는 지금 좀 답답하다 한 줄을 먼저 놓는 겁니다. 성춘향 님이 무엇에 답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2) 성춘향 님은 대답이 늦어질 때 그 사실을 말로 알려주세요. 생각 중이라는 다섯 글자면 됩니다. 홍길동 님은 침묵을 거절로 읽는 쪽이라 이 한마디가 생각보다 큽니다.

3) 두 분이 함께 정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결론을 내지 않는다는 규칙입니다. 미루는 게 아니라 다음 날 다시 꺼내기로 정하는 거예요. 이 규칙 하나가 두 분에게는 가장 잘 듣습니다.

두 달만 해보시고

이 세 가지가 몸에 붙는 데 두 달쯤 걸립니다. 그전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럽습니다.

어색한 게 정상이에요. 원래 하던 방식과 반대로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어색해서 그만두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두 달 뒤에 이걸 세어보시면 됩니다. 다툼이 줄었는지가 아니라, 다툰 뒤에 회복이 빨라졌는지를요. 두 분처럼 부딪히는 배치는 안 부딪히는 게 목표가 아니라 빨리 돌아오는 게 목표입니다.

12. 앞으로의 시기

두 분 다 지금이 전환 자리입니다

이 부분이 이 리포트에서 가장 값이 큰 곳입니다. 두 분의 큰 흐름을 나란히 놓고 보면 지금이 우연한 시점이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홍길동 님은 서른 언저리부터 마흔아홉까지 스무 해 동안 물과 나무의 기운을 지나왔습니다. 홍길동 님 사주에 물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앞에서 봤는데, 없던 것이 밖에서 채워진 스무 해였다는 뜻입니다.

체감으로는 이랬을 겁니다. 혼자 애쓰지 않아도 도와주는 사람이 붙었고, 태워버릴 것 같던 자리에서 누군가 식혀줬고, 무리하고도 회복이 됐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받쳐준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쉰 되는 자리에서 그 흐름이 끝나고 쇠와 흙으로 넘어갑니다.

성춘향 님 쪽

성춘향 님은 마흔다섯 자리에서 이미 대운이 바뀌었습니다. 물과 불이 같이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성춘향 님은 원래 쇠와 물이 많은 분입니다. 여기에 불이 들어오면 그동안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됩니다. 감정이 올라오고, 눌러놨던 것이 올라오고, 지금까지의 방식이 답답해지기 쉬운 자리예요.

성춘향 님 스스로 최근에 나답지 않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다면 그건 흔들려서가 아니라 판이 바뀌어서입니다.

두 흐름이 겹치는 자리

여기가 핵심입니다. 두 분 각자의 전환이 하필 같은 구간에 걸립니다.

게다가 성춘향 님에게 새로 들어온 불의 자리는 두 분 사이에서 원래 부딪히던 그 자리와 같은 글자입니다. 홍길동 님이 쉰에 맞이하는 흙의 자리도 마찬가지로 두 분이 부딪히던 자리를 건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몇 해는 두 분 관계에서 원래 있던 마찰이 평소보다 크게 느껴지기 쉬운 구간입니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건 헤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글자로 알 수 없고,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구조가 말해주는 건 이겁니다. 이 시기에 생기는 다툼을 상대가 변했다는 신호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것. 두 분 각자가 자기 판이 바뀌는 중이라 예민한 것이고, 그 예민함이 원래 약했던 이음매로 몰리는 겁니다.

같은 다툼이라도 상대가 변했다고 읽으면 관계가 상하고, 지금이 그런 구간이라고 읽으면 지나갑니다. 이 차이가 몇 해 뒤에 아주 큰 차이가 됩니다.

그 뒤로는

홍길동 님의 쇠와 흙 구간은 받쳐주던 것이 줄어드는 대신 스스로 세우는 힘이 붙는 자리입니다. 이때 옆에서 기준을 잡아줄 사람이 있느냐가 크게 갈립니다. 성춘향 님이 원래 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구간을 넘기면 두 분은 오히려 앞선 스무 해보다 잘 맞는 조합이 됩니다. 넘기는 게 관건이지 맞고 안 맞고가 관건이 아닙니다.

13. 종합 정리

한 줄로 줄이면

끌리는데 부딪히는 사이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두 분은 중심이 두 겹으로 붙어 있습니다. 일간끼리 붙고 일지끼리도 붙습니다. 마음이 당기는 자리와 같이 사는 자리가 둘 다 맞물린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 바깥에서 두 번 부딪힙니다. 성춘향 님의 자수는 홍길동 님의 축토와 붙으면서 오화와는 밀칩니다. 같은 글자가 붙기도 하고 밀치기도 합니다.

앞의 관계 지표가 높게 나온 건 붙는 자리가 실제로 많아서입니다. 그런데 점수가 높다고 안 부딪히는 건 아니에요. 두 분은 잘 붙는 조합이면서 동시에 잘 부딪히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했던 적이 없을 겁니다. 좋을 때는 아주 좋고 어긋날 때는 확실히 어긋납니다.

좋은 자리 네 가지

첫째, 중심이 두 겹으로 붙어 있습니다. 일간끼리의 을경합과 일지끼리의 자축합이요. 이건 노력으로 만들 수 없고, 두 분 관계가 흔들려도 잘 안 끊어지는 근거입니다.

둘째, 없는 것을 서로가 갖고 있습니다. 홍길동 님에게 없는 물을 성춘향 님이 셋 갖고 있고, 성춘향 님에게 없는 나무가 홍길동 님입니다. 서로의 빈칸이 정확히 맞물린 자리예요.

셋째, 역할이 겹치지 않습니다. 벌이는 사람과 정리하는 사람이 나뉘어 있어 같이 뭘 해도 굴러갑니다.

넷째, 서로를 보는 자리가 달라서 위아래로 눌리지 않습니다. 한쪽은 존중하고 한쪽은 챙깁니다.

조심할 자리 세 가지

첫째, 온도 차입니다. 홍길동 님이 뜨거울 때 성춘향 님이 차갑습니다. 감정이 올라온 자리에서 결론을 내지 않는 것 하나로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생활 기준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자리에서 어긋납니다. 한 번 정해서 적어두는 쪽이 두 분에게는 훨씬 잘 맞습니다.

셋째, 말하는 순서입니다. 홍길동 님은 감정을 먼저 놓고, 성춘향 님은 정리 중이라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관계를 봐드리면서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사주는 이 사람과 잘 맞는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디서 부딪힐지를 알려줍니다.

잘 맞는 사이는 없습니다. 어디서 부딪히는지 아는 사이와 모르는 사이가 있을 뿐입니다.

두 분은 이제 아셨습니다. 부딪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왜 거기서 부딪히는지, 그때 무엇을 하면 되는지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한 가지 당부

이 리포트를 두 분이 같이 보신다면 한 가지만 조심해 주십시오.

여기 적힌 것을 상대를 지적하는 데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봐라 너는 이렇다고 쓰기 시작하면 이 글자들이 무기가 됩니다.

글자는 사람을 판단하려고 세는 게 아닙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러는지 이해하려고 세는 겁니다.

성춘향 님이 말이 없는 게 답답하셨다면 이제 그게 무관심이 아니라 정리 중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홍길동 님이 감정을 쏟는 게 버거우셨다면 그게 못 참아서가 아니라 내보내는 게 기본값인 판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 이해 하나가 앞으로 두 분이 부딪힐 때마다 조금씩 값을 합니다.

마지막 문장

두 분은 잘 맞는 편입니다. 다만 저절로 잘 맞는 쪽이 아니라 알고 나면 잘 맞는 쪽이에요.

이제 아셨으니 그다음은 두 분 몫입니다.